

하류의 물고기가 배축음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현재 한강 상류는 아직 용존산소는 위험수준은 아니지만 하류는 어족(漁族)이 살수없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농약중에 『디엘드린』과 같은 것은 0.002ppm(10억분의 2)의 농도에서 어족들이 사멸한다고 한다.

또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수중에는 심한 독성물질과 산(酸), 알카리등이 섞여 있다.

이것은 직접 물고기의 사멸원인이 될뿐만아니라 먹이의 변화때문에 물고기의 감탈(減滅)을 가져오기도 한다.

물속의 극히 미량의 농약이나 중금속(重金屬)염류는 어족의 체내에 축적되어 유독화(有毒化)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롱아일랜드』의 염수성습지대에서는 물속의 농약의 농도보다 거기에서 사는 물고기 체내에 약 2만 배의 농약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강은 인간활동에 의해서 오염이 심해져가고 있다. 이제 이대로 오염을 방치한다면 한강의 물고기는 수년 내에 영혼히 살아가게 될것이 분명하다.

<필자=延世醫大 예방의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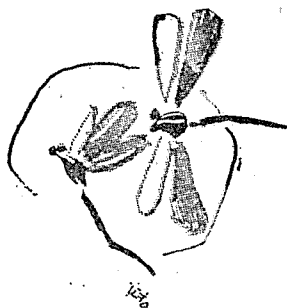
● 기생충 박멸표어

기생충 박멸하여

내 건강 내가 찾자

파괴되는 우리들 낙원 ●

공원이 없는 도시(都市)



李元壽

사람은 의따로 떨어져 살지 못하는 것이라서 항상 가까이 모여 살게 되지만, 오늘의 도시처럼 너무 모이다 보면 콩나물 시루 속의 콩나물과 같은 형편에 놓이고 말게 된다.

넓은 땅에서 콩 하나하나가 햇볕과 공기를 마시며 자라야 비로소 콩나무가 되고 꽃피어 열매를 맺는 것인데, 콩나물이 되어서는 생명은 금새 끝장이 나고 만다.

도시의 이 비좁은 공간(空間)속에서 공해(公害)와 함께 살고 있는 도시민(都市民)은 가엾은 것이다. 이 가엾은 신세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길이라 할 것이 공원을 가지는 일이다.

사람은 초목(草木)과 같이 살아야 한다. 초목과 같이 숨쉴 수 있어야 한다. 풀과 나무와 꽃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요, 그보다 더 생

명을 길러주는 절대적인 요소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도시의 그 더러워진 공기를 깨끗이 해 줄 자는 어떤 기계도 아니요, 어떤 약품도 아니다. 초목만이 이 혼탁된 공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다.

그러나 초목이 자리잡을 땅이 너무나 없지 않은가. 도시의 공원은 바로 초목의 자리요, 그 자리에 우리들이 가까이하여 초목과 같이 숨쉬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고층건물은 늘어나도 공원은 만들어지지 않으니 큰일이다.

공원 없는 도시의 사람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의 대상(隊商)이나 다름 없다. 풀과 나무 없는 곳에 버려진 벌레나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목마르고 지쳐 쓰러질 것이다. 쨍쨍 쪼는 폭양(暴陽)에 가쁜 숨을 쉬다가 쓸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살기 위해 모여들고, 모여들어 도시를 이루지만, 스스로 시루속의 콩나물이 되는 운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실령 관심을 가진다해도 그건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형식적인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인(都市人)이 눈앞의 이(利)에 마음 쏠리어 눈에 보이지 않는 중대사에는 마음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평 땅의 값을 따져자면, 풀이나 나무를 심어 놓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무가 많은 외국의 도시를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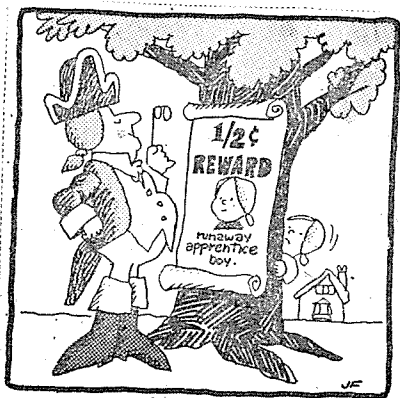
나무가 거의 없는 것은 남 부끄러울뿐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큰 걱정거리이다.

우리 서울은 참으로 좋은 자연환경 속에 있지만, 주변의 그 아름다운 산들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도심부(都心部)에 공원을 많이 만들어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염된 배기를 깨끗이 해야 하겠다.

공원이라 해도 비싼 화초(花草)로서 장식할 것이 아니요, 무성한 나무를 가지게 해야 한다. 나무들과 같이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손해를 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도시는 날로 팽창해 가기만 한다. 처음부터 공원을 마련하지 못한 불행은 말하기 전에 팽창해 가는 도시의 주변에 과감한 계획으로 녹색대(綠地帶)를 만들어 수목(樹木)을 키워야 할 것이다. 푸른잔디와 아름다운 꽃에만 마음 둘 것이 아니라 값싼 나무라도 무성하게 함이 바람직한 일 아닐까.

<필자=아동문학가>



현상! 20원! 도방간 소년